

IBKS CARBON FINANCE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3
2025.06.30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15개 회원국, ETS2 가격 급등 우려로 제도 수정 요청
- 영국, 전기요금 인하 위해 탄소정책 강화 및 EU ETS 연계 추진
- 감축에서 제거로, 스위스-노르웨이 세계최초 '탄소 제거 협정' 발표
- 노르웨이, 2035년까지 최대 75% 감축 목표 제출, 국제 협력 가능성도
- 싱가포르 정부, 자발적 탄소크레딧 활용 지침 초안 발표
- 영국, 싱가포르, 케냐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 위한 연합체 출범
- 호주, 바이오연료용 Oil seed 식재 탄소감축 방법에 포함 검토
- 영국, 석유 개발 규제 강화, Shell·Equinor 북해 프로젝트 영향
- 이탈리아, 데이터센터 폐열로 1,300세대 난방, 탄소 3.5톤 감축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15개 회원국, ETS2 가격 급등 우려로 제도 수정 요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15개 회원국이 EU 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제출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EU ETS2에 대한 제도 수정을 공식 요청

EU ETS2는 건물 난방, 도로 운송 부문이 대상으로, 연료 공급자가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됨.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계의 연료 및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

회원국들은 ETS2 제도 수정을 위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

1. ETS2 정보 정기적 공개: 시장 참가자 가격 예측 가능성 제고
2. 배출권 조기 경매 시행: 가격 안정화 유도
3. 시장안정화메커니즘 (MSR) 개선: 가격 급등 방지
4. MSR 적용 기한을 현행 2031년에서 연장: 안정성 유지
5. 가격 통제 메커니즘 강화: 시장 신뢰성 제고

현재 공동 서한에 참여한 국가는 EU 정책 변경을 위한 정족수를 초과한 상태이며, 타 국가의 추가 참여 가능성도 존재. 따라서 EU 집행위는 ETS 관련 입법 개정안을 제출할 법적·정치적 압력을 받게될 전망

영국, 전기요금 인하 위해 탄소정책 강화 및 EU ETS 연계 추진

영국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탄소가격 제도를 강화하고, EU 배출권거래제 (ETS)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을 공개

2030년까지 MWh당 35~40파운드(약 65,000~74,000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하를 목표로 하며, 2027년부터 '영국 산업 경쟁력 제도 (British Industrial Competitiveness Scheme)'를 도입할 예정

청정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전기요금 부과금 (재생에너지 의무 비용, 발전차액 등)을 면제하고, 전력망 요금 보조 비율도 기존 60%에서 90%로 확대

CBAM 대응을 위해 2027년부터 영국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앞서 EU ETS와의 연계를 통해 수출산업의 탄소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함. ETS 연계가 완료될 시 영국 배출권 (UKA)은 EU배출권 (EUA)과의 가격 차이가 거의 해소될 전망 (현재 UKA는 EUA 대비 약 €13 저가)

영국은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탄소 포집 (CCUS)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탈탄소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후목표 이행을 병행할 예정

감축에서 제거로, 스위스-노르웨이 세계 최초 ‘탄소 제거 협정’ 발표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세계 최초로 국가 간 ‘Negative Emissions^{*}’ 크레딧을 거래하는 양자 협정을 체결함. 이는 양국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서로 크레딧을 사고파는 ‘국제 거래’를 제도화한 첫 사례

협정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BECCS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제거한 이산화탄소 크레딧 1,000~10,000톤을 스위스에 판매하며, 스위스는 광물탄산화 기술로 제거한 크레딧 100~1,000톤을 노르웨이에 판매하는 소규모 시범 거래를 2028~2029년 중 추진할 예정

동 협정은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 감축 실적 이전 (ITMO)’ 기준을 충족하며, 이중계산 방지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 이를 통해 양국은 국제 탄소시장에서 탄소제거 기술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검증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거래 및 민간 기업 중심의 탄소 제거 시장 형성을 기대

***Negative Emissions**

: 단순히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것 (mitigation)이 아니라, 배출한 양보다 더 많은 CO₂를 대기에서 제거함으로써 순 탄소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

노르웨이, 2035년까지 최대 75% 감축 목표 제출, 국제 협력 가능성도

노르웨이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70~75%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를 UN에 제출

주요 감축 수단은 국내 감축 조치와 EU와의 협력이며, 필요 시 파리 협정 Article 6 조항을 활용해 해외 감축실적 (ITMO)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힘.

이번 목표는 2030년까지 최소 55%를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보다 강화된 것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려는 국제 사회 노력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평가

노르웨이는 CCS (탄소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스위스와 첫 Article 6 기반 탄소거래를 완료, 이미 6개국과 ITMO 거래를 위한 양자 협약도 맺은 상태

싱가포르 정부, 자발적 탄소크레딧 활용 지침 초안 발표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 활용 지침 초안을 발표

이는 그간 관련 업계가 정부에 자발적 탄소시장 내의 기준 부재 및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한 것에 대한 응답

주요 내용:

1.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 파리협정 제6조, CCP, CORSIA 등

2. 환경 무결성 원칙 강조

: 고품질 탄소 크레딧 구매를 유도

3. 우선 감축 원칙

: 크레딧 사용 전 자체 감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4. 상응조정 비조정 명시

: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위한 크레딧은 국가감축목표 (NDC) 미반영

동 지침은 싱가포르 정부의 고무결성 탄소시장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세 상계 허용, 기후공시 강화, 크레딧 개발 보조금, MRV 생태계 육성 등과 함께 추진되며, 7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

영국, 싱가포르, 케냐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 위한 연합체 출범

영국, 싱가포르, 케냐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 (VCM)의 신뢰 회복 및 고무결성 (high-integrity) 탄소크레딧 수요 확대를 위해 ‘탄소 시장 성장 연합 (Coalition to Grow Carbon Markets)’을 6월 24일 공식 출범. 프랑스와 파나마가 창립 회원국으로, 페루는 지지국으로 참여 중이며, 연말까지 추가 가입국이 이어질 전망

연합체는 국가 간 공통 원칙을 제시해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내의 규제·인정 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할 예정으로, 오는 11월 브라질 COP30 회의에서 공식 원칙을 발표할 계획

동 연합은 일부 탄소 프로젝트 품질에 대한 논란과 유동성 저하로 위축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2050년까지 최대 2,500억 달러 (약 400조 원) 규모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함. 나아가 1.3조 달러 (약 1,8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정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호주, 바이오연료용 Oil seed 식재 탄소감축 방법에 포함 검토

호주 정부가 Oil seed (식물성 오일을 추출하는 작물) 나무를 심어 탄소를 흡수하고, 이 나무에서 수확한 종자를 바이오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존 산림 기반 감축 방법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 이는 탄소 저장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RAC (배출감축보장위원회)는 동 방안을 기존 방법론 안에 모듈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

현재 논의 중인 기존 방법론 :

1. Plantation Forestry Method (산림 조림 방법론)

: 상업용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조림 활동에 ACCUs를 발행

2. RAA Method (재조림 및 조림 방법론)

: 영구적 숲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탄소를 저장

3. EP Method (환경 식재)

: 토종 나무 식재만 허용

→ 이 중 RAA 방식이 갱신 예정(2025년 9월 만료)이므로,
새로운 Oil seed를 추가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의견

Oil seed 식재 프로젝트는 탄소배출권 (ACCUs)과 연료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유사, 항공사, 물류업체 등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헥타르당 약 100ACCUs의 탄소감축 효과 (중간 수준의 EP 프로젝트와 비슷한 수준)가 예상되어 경제성과 시장성이 높은 감축 활동으로 평가

영국, 석유 개발 규제 강화, Shell·Equinor 북해 프로젝트 영향

영국 정부가 신규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 연료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뿐 아니라, 연료가 최종적으로 사용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간접 배출량 (Scope 3)도 승인 기준에 포함

Scope 3 배출량은 석유와 가스가 최종 소비될 때 방출되는 온실가스로, 프로젝트의 전체 탄소 발자국을 반영하는 핵심 요소임. 금번 조치는 영국이 2050년 넷제로 (Net Zero)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 개발 정책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

동 지침은 북해의 두 대형 프로젝트, 다국적 석유 기업 쉘 (Shell)의 'Jackdraw'와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기업 에퀴노르 (Equinor)와

이타카 에너지 (Ithaca Energy)가 추진하는 'Rosebank'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

이 두 프로젝트는 과거 법원에서 불충분한 환경평가로 승인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영국의 에너지부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를 가을 이후 결정할 예정. 기후 목표와 에너지 안보 간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

이탈리아, 데이터센터 폐열로 1,300세대 난방, 탄소 3.5톤 감축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 A2A와 프랑스의 클라우드·고성능 컴퓨팅

기업 Qarnot이 컴퓨터 서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지역 난방망으로 직접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센터를 이탈리아 북부 브레시아 (Brescia) 지역에 개소했다고 발표

기존 데이터센터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공기 냉각 방식으로 식힌 후, 그 열을 외부로 그대로 배출해 에너지 낭비 문제가 제기. 반면 해당 시설은 액체 냉각 기술을 통해 서버의 열을 흡수, 지역 난방망에 연결하여 약 1,350세대의 난방을 충당하고 연간 3,500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2A의 CEO는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산은 전력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등 에너지 인프라에 부담을 주나, 지역 난방망을 갖춘 도시들에는 에너지 재활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

디지털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를 지역 에너지 순환 구조와 연결하는 동 프로젝트는 향후 도시 단위의 탈탄소 전략에서 중요한 해법으로 평가

IBKS 탄소금융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기술&설비 투자
- 주식,채권,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